

야부우찌 선생 추도사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수내청(蘇內淸, 야부우찌 기요시) 교수의 부음은 팩스로 날아왔다. 2000년 6월 8일 날짜가 찍힌 외대 용인캠퍼스 인문대 팩스를 내 손에 넣은 것은 아마 그보다 며칠 뒤 내가 학교에 나갔을 때였을 것이다. 수내청 교수는 6월 2일 94세를 일기로 경도(京都)의 자택에서 서거했으며, 그 추모회가 7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니 참석해주면 고맙겠다는 전갈이었다. 경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전중담(田中淡) 이름의 이 부고는 중국어로 쓰였고, 그 아래에는 연구소 조수 이름으로 일본어 안 내문이 들어 있었다.

그 후 연락 과정에서 날짜가 바뀌어, 나는 결국 7월 23일 오후 경대회관(京大會館)에서 열린 추모회에 참석했고, 전상운 교수 이외의 유일한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간단한 인사말까지 하게 되었다. 그 날 인사에서도 말했듯이 사실 나는 수내청 교수와 별로 직접 관계가 없다. 그 분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은 일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나마 가깝게 접하여 깊은 대화라도 나눌 기회를 가진 일도 없다. 내가 1990년 열달 동안 경도대학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 일본에 있는 기간에 나를 안내해 준 판출상신(坂出祥伸)교수가 한번 날을 잡아 수내청 교수를 뵈러 가자고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현된 일도 없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다만 그 때 <한일과학사세미나>가 경도에서 열리는 바람에 단체로 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이 정도면 나는 정말로 수내청 교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성싶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그리면 사람이라 느껴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내가 아는 일본의 과학사 학자 대개가 바로 수내청 교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1981년 시작하여 두 나라를 오가며 여러 차례 계속된 <한일과학사세미나>는 바로 그의 제자들이 시작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한국측 대표는 물론 전상운 교수였다. 수내청 교수가 여러 차례 꼭 참석하고 강연했던 연유가 여기 있다.

그는 1929년 경도대학 우주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모교에 남아 천문학사를 연구했다.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의 동기생 둘은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 바로 탕첸수수

(湯川秀樹, 1949년 수상)와 조영진일랑(朝永振一郎, 1965년 수상)이 그들이다. 순수과학을 공부한 그의 친구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과 달리, 그는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다. 과학사에는 그런 상이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지 사튼 메달이 주어지기도 했고, 우리 한국과학사학회도 감사패를 드린 일이 있다. 그리고 그의 추모회장에는 바로 이것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수내청은 일생 동안 주로 중국과학사를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연구서로 보다 폭넓은 것으로 『중국의 천문역법』을 비롯하여 『수당(隋唐)역법사의 연구』 등이 있고, 제자들과 함께 낸 연구서로 『천공개물(天工開物)의 연구』, 『중국 증세과학기술사의 연구』, 『송원(宋元)시대의 과학기술사』, 『명청(明清)시대의 과학기술사』 등도 있다. 이런 보다 깊이 있는 저작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된 일이 없다.

그의 책 가운데에는 『중국의 과학문명』(全相運 역), 『중국의 수학』(朴世熙 역), 『중국의 천문학』(兪景老 편역) 등 세 가지만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많이 읽히고 있다. 비교적 대중적인 책들만이 번역되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그는 나름대로 대중적인 역할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추모회에서는 제자인 궁도(宮島一彦) 교수가 그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모아 소개했는데,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70년대 후반에 교양 강좌를 맡아 방송한 일도 있고, 바로 그 방송을 교재로 낸 것이 1979년에 나온 『중국과학기술사』라는 방송교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고대 천문도에 대해 해설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수내청 교수 자신은 한국 과학사에 대해 그리 적극적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차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상운 교수와의 인연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제자로 경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의 한 추억을 전 교수는 이렇게 술회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옛 서울들인 교토(京都)와 나라(奈良)를 잇는 전철은 나와는 인연 깊은 철도다. ... 그 철도를 달리는 급행이 서는 전철역에 고우리아마라는 조금은 낯익은 고올이 있다. 한자로 郡山이라고 쓴다. 그 지역에서는 郡자를 일본의 훈한 발음인 gun으로 읽지 않고 kouri라고 읽는다. 우리말의 고올이다. 옛날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전문가 집단이 정착했던 곳의 하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1960년대 말에 필자를 처음 그곳에 안내해 준 필자의 스승인 야부우찌(藪内清) 교수의 설명이었다(전상운 『한국과학사』, 375 쪽).

전 교수와의 관련은 다른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내가 수내청 교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경우 때문이다. 미국 유학중이던 1970년쯤 『조선학보』(朝鮮學報) 49호(1968년 10월)에 그의 논문 “이조(李朝)학자의 지전설”을 읽고 나는 조금 불만이였다. 당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라 과학사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던 나로서는 홍대용(洪大容)의 지전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대해 수내청 교수가 비판적 논평을 했던 까닭이다. 그는 1765-66년 북경을 방문했던 홍대용이 누군가 서양 선교사를 만나 지전설을 듣고 그런 주장을 썼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논문을 그로서는 본격적 연구라기보다는 전상운 교수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알게 된 한국 과학사에 대해 무언가 써보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그가 이를 계기로 한국 과학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내청 교수는 <한일과학사세미나>를 적극 추진했고, 또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과학사적 관련성에 대해 생각도 하고, 발표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는 그의 불만족스런 논문은 수내청 교수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된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글이란 생각이 든다.

그는 1981년 6월 제1회 <한일과학사세미나>(서울)에 참석하여 “조선과 일본과학사”라는 개막연설을 했고, 또 우리 일행이 함께 경주를 방문하여 첨성대 등을 구경하고는 동국대 강당에서 밤깊을 때까지 첨성대에 대한 토론을 벌인 일도 있다. 또 제2회 세미나는 경도에서 열렸는데, 그 때에도 개막연설을 맡아서 “한일 양국에서의 중국과학의 수용과 독자적 전개”를 말했다. 이 두 연설은 『한국과학사학회지』 4권, 5권에 남아 있다. 또 일본의 『전파신문』에 3회(1983년 4월 5-7일)에 걸쳐 한국의 회고록을 집필한 것도 보이는데,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

또 전상운 교수가 번역한 그의 책 『중국의 과학문명』(전파과학사, 1974)에는 수내청 교수의 한국판 서문이 있고, 그 앞장에 사진이 있는데, “1969년 봄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앞에 나란히 著者(右)와 譯者”라는 설명이다.

지난 7월 23일 경도는 역세계도 더운 날씨였다. 그 날의 추모회는 <藪內清先生をぶ會>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그 발기인 16명 가운데에는 전상운, 川原秀城, 坂出祥伸, 田中淡, 中山茂, 橋本敬造, 宮島一彦, 矢野道雄, 山田慶兒 등 아는 이름이 가득했다. 모두 한일세미나 등으로 우리 과학사 학자들과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천원 교수는 그의 제자로서 드물게 동경대 교수가 되어 중국 수학사를 전공하고 있다. 1996년 서울에서 열렸던 <동아시아과학사 국제회의>에 왔다가 한국 수학사도 공부해야겠다는 한국에 유학와 8개월인가 공부하고 돌아왔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주선하여 외대에서 외국인 교수 아파트를 얻어 지냈다. 한국어를 공부하여 제법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추모회는 간친회라는 모임으로 이어졌는데, 각자 1만엔씩 추렴은 했지만, 먹고 마실 것이 아주 풍족한 일본식답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잔치였다. 그 자리에서 많은 과거의 동료, 후배, 제자들은 돌아가며 재미있던 고인과의 추억담을 나누고 즐겼다.

이 모임도 끝난 다음 우리 몇은 열대야(熱帶夜)를 무릅쓰고 한참을 걸어 경도대학 입구에 있는 다방에서 차를 한 잔씩 나누며 뒤풀이를 했다. 참석자는 전상운, 川原, 坂出, 橋本, 宮島, 矢野, 그리고 나 등이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제 거의 잊혀질 듯한 <한일과학사세미나>를 일본이 열 차례 라면서 다음 모임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전 교수와 나는 그저 듣고만 있는 편이었지만 ... 중국과학사의 세계적 학자로 꼽히는 수내청 교수는 결국 한일 과학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도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된다.